

광양 여자축구 황금시대 활짝 열었다

광양여고 여왕기 전국대회 우승 7년 만에 같은 대회 제패 여중부 광양여중은 준우승

광양여자 축구의 황금세대들이 전국무대에서 존재감을 재확인했다.

광양여고와 광영중 여자축구부가 제30회 여왕기 전국여자축구대회 우승, 준우승을 일궈냈다.

7일 전남도체육회에 따르면 광양여고는 최근 삼척시 북합B구장에서 열린 대회 여고부 결승에서 포항여전고를 연장 접전 끝에 4-3으로 꺾고 정상에 올랐다.

광양여고는 2015년에 이어 7년 만에 같은 대회에서 우승했다.

지난해 여왕기 결승에서 포항여전고에 1-3으로 패한 광양여고는 리턴매치에서 설욕전을 펼쳤다.

결승전은 역전과 재역전이 반복된 명승부였다.

광양여고는 경기 초반 여자고등부 최강 포항여전고의 기세에 밀리며 고전했다.

전반 14분 선취점을 내주며 승부의 균형이 깨지



최근 열린 제30회 여왕기 전국여자축구대회에서 우승한 광양여고 여자축구부(왼쪽)와 여중부에서 준우승한 광영여중 여자축구부.



전남도체육회 제공

자 광양여고는 교체개드로 분위기가 반전에 나섰다.

치열한 공방이 이어졌고 광양여고가 세트피스로 승부를 원점으로 돌렸다.

전반 30분 오른쪽 측면 프리키 상황에서 최한빈의 강력한 왼발슈팅이 상대 골키퍼 앞에서 바운드된 후 그대로 골대로 빨려 들어가 1-1 동점을 만들었다.

여세를 몰아 후반에는 승부를 뒤집었다. 정다빈의 왼발 슈팅이 골망을 흔들며 역전에 성공했다.

역전골 이후 기세가 오른 광양여고는 승부에 쉼기를 박으려했으나 후반 33분 동점골을 내줘 승부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다.

80분간의 혈투에도 승부를 가리지 못한 양 팀은 연장전에 돌입했다.

연장전은 피를 말리는 접전이었다.

연장 2분 포항여전고에 골을 내준 광양여고는 2분 뒤 최한빈이 오른쪽에서 올린 크로스를 정다빈이 골대 정면에서 마무리하며 3-3 다시 동점을 만들었다.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승부에서 최한빈이 승부추를 기울였다. 연장 후반 3분 최한빈이 하프라

인에서 상대 페널티박스까지 50여m를 드리블로 치고 들어가 상대 수비수들의 수비벽을 뚫고 날린 오른발 슈팅이 그대로 골망을 갈랐다.

광영중은 여중부 준우승을 차지했다.

광영중은 지난 5일 같은 장소에서 열린 같은 대회 중등부 결승에서 경기 설봉중에 0-1로 패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라파엘 나달

“내가 간다 결승전”

‘최다 우승’ 나달 vs ‘돌아온 악동’ 키리오스...웍블던 4강 맞대결

메이저 테니스 대회 남자 단식 최다 우승 기록 경신에 도전하는 라파엘 나달(4위·스페인)과 ‘악동’ 닉 키리오스(40위·호주)의 웍블던(총상금 4035만 파운드·약 642억3000만원) 준결승 맞대결이 성사됐다.

나달은 6일(현지시간) 영국 웍블던의 올잉글랜드 클럽에서 열린 대회 10일째 남자 단식 8강전에서 테일러 프리츠(14위·미국)를 4시간 21분 만에 3-2(3-6 7-5 3-6 7-5 7-6(10-4))로 힘겹게 물리쳤다.

메이저 대회 최다 22회 우승 기록을 보유한 나달은 이제 2승만 더 올리면 이 기록을 23회로 늘려 나란히 20회 우승한 노바크 조코비치(3위·세르비아), 로저 페더러(97위·스위스)와 격차를 벌인다.

그런데 다음 준결승 상대가 만만치 않다. 이날 크리스티안 가린(43위·칠레)을 3-0(6-4 6-3 7-6(7-5))으로 완파한 닉 키리오스와 결승 진출을 다툰다.

코트에서 분을 사하지 못하고 사고를 자주 쳐 ‘코트의 악동’으로 불리는 키리오스는 이번 대회에서도 두 차례나 벌금 징계를 받는 등 여전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경기력만큼은 한결 성숙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번 대회 3회전에서는 세계랭킹 5위 스테파노

스 치치파스(그리스)를 3-1로 제압했다.

2013년 프로에 입문한 키리오스가 메이저 대회 준결승에 오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014년 웍블던 8강, 2015년 호주오픈 8강이 키리오스가 그간 메이저 대회에서 거둔 최고 성적이다.

키리오스의 ‘출세 경기’라 할 만한 2014년 웍블던 16강전 상대가 바로 나달이었다. 당시 키리오스는 나달을 3-1로 완파하고 ‘테니스 천재’ 소리를 들었으나 이 수식은 금방 ‘개으른 천재’로 바뀌었다.

통산 맞대결 전적에서는 나달이 6승 3패로 앞선다. 나달은 상대전적 2연승을 달리고 있다. 2019년 웍블던 2회전, 2020년 호주오픈 16강전에서 키리오스에게 연달아 승리했다.

나달은 이날 북부 부상에 발목이 잡혀 프리츠를 상대로 고전했다. 2세트 중 통증을 못 이겨 메디컬 타임아웃을 쓰기도 했다. 근육을 풀고 진통제, 소염제를 먹고서 코트로 돌아왔다.

통증 때문에 서브 자세를 바꾸는 등 어려움을 겪던 나달은 프리츠의 실수를 끝까지 몰고 늘어져 마지막 세트 타이브레이크까지 가는 혈투 끝에 역전승을 일궈냈다. 나달과 키리오스의 경기 승자는 조코비치-캐머런 노리(12위·영국) 경기 승자와 결승에서 격돌한다.

/연합뉴스



닉 키리오스

골프 세계 8위 호블란 “또 클럽이 없어졌네”

항공사 실수로 올해 두 번 낭패

남자 골프 세계랭킹 8위 빅토르 호블란(노르웨이)이 1년에 두 번이나 골프 클럽을 잃어버리는 낭패를 당했다.

호블란은 미국프로골프(PGA)투어 제네시스 스코틀랜드 오픈 출전을 위해 여객기를 타고 대회가 열리는 스코틀랜드에 도착했지만, 비행기를 탈 때 부친 골프 클럽은 온데간데없었다.

골프 클럽뿐 아니라 옷 가방도 찾을 수 없었다.

호블란은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비행기를 탔는데, 항공사 실수로 골프 클럽과 옷 가방은 비행기에 실리지 않았다.

호블란은 “행운을 비는 것 말고는 할 게 없다”고 한숨을 내쉬었다고 이 사건을 처음 보도한 유로스포츠가 전했다.

다행히 현장에 먼저 자리를 잡고 있던 핑 골프 토너먼트 지원팀이 부랴부랴 호블란이 쓰던 클럽을 다시 만들어줘 연습은 할 수 있었다.

호블란은 “1라운드 티오프 전에 골프 클럽이 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호블란은 현지시간으로 7일 오전 8시 5분에 1라운드를 시작했다.

호블란이 항공사 잘못으로 골프 클럽을 통째로 잃어버린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1월 하와이에서 열린 센트리 토너먼트 오브 챔피언스 때도 호블란의 골프 클럽은 제 때 도착하지 않았다. 그때는 캐디의 클럽을 빌려 연습 라운드를 치렀다.

1라운드 직전에 겨우 찾았는데 드라이버는 부러져 있었다.

호블란은 작년 11월 월드 와이드 테크놀로지 챔피언십 때는 연습장에서 드라이버가 부러지는 바람에 동료 선수 제임스 한(미국)의 예비 드라이버를 빌려 우승하기도 했다.

2020년 푸에르토리코 오픈에서 노르웨이 선수는 처음 PGA투어 대회 정상에 오른 호블란은 PGA투어에서 3차례 우승했다.

어릴 때 태권도를 배워 국내 팬들에게는 ‘태권 장남’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페이버 오필리

“내 이름을 기억해”

나이지리아 스프린터 육상 신성 오필리, 여자 200m 톱프스에 도전장

2002년생 나이지리아 스프린터 페이버 오필리(20)가 올림픽에서 5개의 금메달을 목에 건 일레인 톱프스(30·자메이카)를 향해 유쾌한 도전장을 내밀었다.

올림픽대결이 7일(한국시간) 공개한 인터뷰에서 오필리는 “우리 아프리카 스프린터들은 자신을 믿는다. 어떤 일이든 해낼 수 있다”며 “여전히 ‘재가 아프리카에서 온 단거리 선수야? 그렇다면 내가 이길 수 있지’라는 시선이 있다. 유진 세계육상선수권 대회에서 그런 시선을 바꿔보겠다. 내 이름을 기억해달라”고 말했다.

최근 육상 여자 단거리에서 가장 주목받는 아프

리카 여자 스프린터는 크리스틴 음보마(19·나미비아)다. 음보마는 지난해 열린 도쿄올림픽 여자 200m에서 21초81로 은메달을 따냈다. 당시 1위는 21초53의 톱프스였다.

그러나 음보마는 허벅지와 엉덩이 근육을 다쳐 현지시간으로 오는 15일 미국 오리건주 유진에서 개막하는 2022 세계육상선수권대회 출전을 포기했다.

대신 오필리가 톱프스에게 도전장을 던졌다.

나이지리아에서 태어나고 자랐지만, 현재 미국 루이지애나 주립대학에서 선수 생활을 이어가는 오필리는 올해 4월 플로리다에서 열린 미국 대학 경

기 여자 200m 결선에서 21초96의 ‘잠미 대학 신기록’을 세웠다.

이 기록은 지난달 27일 미국 육상선수권에서 켄터키 대학 졸업생 앞둔 애비 스타이너(23)가 21초77로 우승하면서 깨졌다.

하지만, 오필리의 21초96은 올해 세계 5위에 해당하는 최상위권 기록이다.

오필리가 2020년 23초24, 2021년 22초23에서 올해 21초96으로 빠르게 기록을 단축하고 있다는 점도 고무적이다.

그는 “지금 나를 가장 자극하는 선수는 톱프스이다. 톱프스는 정말 완벽한 스프린터”라고 유진 세계선수권에서 만난 우상들을 떠올렸다.

그는 “톱프스의 모든 면을 존경한다”고 밝히면서도 “처음 세계선수권에 출전하지만, 참가에 의의를 두지 않았다. 나는 우승을 목표로 200m 결선에 설 것”이라고 다부지게 말했다.

/연합뉴스

LOTTE CINEMA | 총장로관

단체 및 대관문의 1544-8855

- 1관 토르: 러브 앤 썬더
- 2관 토르: 러브 앤 썬더
- 3관 범죄도시 2, 마녀(魔女) Part2, The Other One
- 4관 토르: 러브 앤 썬더
- 5관 토르: 러브 앤 썬더
- 6관 토르: 러브 앤 썬더
- 9관 탐간: 매버릭
- 7관 씨네캐슬 탐간: 매버릭, 범죄도시 2, 빅사크4: 바다공룡 대모험
- 8관 씨네캐슬 헤어질 결심, 범죄도시 2

광주문화예술회관 문의 062)613-8353

광주문화예술회관 특별기획공연
GAC ART WEEK
일시 : 2022.07.06.(수)-15.(금)
장소 : 광주광역시청 야외음악당
문의 : 062-613-8235

광주국악상설공연
일시 : 2022.07.01.(금)-31.(일)
매주 화요일 ~ 일요일
장소 : 광주 공연마루
문의 : 062-613-8379, 8372

즐거움
**문화
산책**